

소 장

원 고 참누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에스에이치공사 외 1

소 가: 373,000,000 원

인지대: 1,392,300 원

송달료: 106,500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참누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성북구 한천로101길 18(장위동)
대표자 회장 김운철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최승관, 김미란, 최유란, 박형권



피 고 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621(개포동)
사장 변창흠

2. 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이사장 박승준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한천로101길 18(장위동) 소재 참누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 7개동 373세대의 각 동 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상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병행)하는 손해배상청구채권 등을 양수받은 양수인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236, 각 채권양도약정서 및 통지권한위임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서는 양이 방대하므로 변론절차에서 피고들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거나 추후 서증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이고, 소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흥화(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합니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분양계약서, 갑 제3호증 집합건축물대장)

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소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흥화¹⁾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입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각 하자보수보증서).

2. 피고들의 의무

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의 의무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6. 04. 18.자로 사용승인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자들을 입주시켰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병행)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의무

1) 하자보수보증서상에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치아이를 계약자로 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치아이는 2009. 2. 2. 주식회사 흥화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소외 울트라건설을 위하여

- ① 2006. 04. 25. 부터 2007. 04. 24. 까지는 178,600,946원을,
- ② 2006. 04. 25. 부터 2008. 04. 24. 까지는 184,853,044원을,
- ③ 2006. 04. 25. 부터 2009. 04. 24. 까지는 36,425,447원을,
- ④ 2006. 04. 25. 부터 2016. 04. 24. 까지는 228,665,498원을,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소외 흥화를 위하여

- ① 2006. 04. 25. 부터 2007. 04. 24. 까지는 76,543,262원을,
- ② 2006. 04. 25. 부터 2008. 04. 24. 까지는 79,222,734원을,
- ③ 2006. 04. 25. 부터 2009. 04. 24. 까지는 15,610,906원을,
- ④ 2006. 04. 25. 부터 2016. 04. 24. 까지는 97,999,499원을,

각 보증금액으로 하여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및 특기사항에 의거 위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각 하자보수증서).

3.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04. 18.자로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자들이 입주한 후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소외 건설사들에 하자발생사실을 통보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갑 제5호증 1 내지 4 각 하자보수요청공문), 피고 및 소외 건설사들은 차일피일 보수를 미루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소외 건설사들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부득이,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는 각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의 지위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확한 하자보수비용은 하자감정을 통하여 확정하여 청구하기로 하고 일단 그 일부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6 각 채권양도약정 및 채권양도통지권한위임서
1. 갑 제2호증 분양계약서
1. 갑 제3호증 집합건축물대장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각 하자보수보증서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하자보수요청공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고유번호증 1통
1. 법인 등기부 등본 2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2016. 1.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 민 석



최 승 관



김 미 란



최 유 란



박 형 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